

대학도서관의 차세대 OPAC 체크리스트 개발

The development of Evaluation Checklist for Next generation OPAC of University Library

김예린, 동의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dandy-rin@hanmail.net
정영미, 동의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yomjung@deu.ac.kr
Ye-Rin, Kim, Graduate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Dong-eui University
Young-Mi, Jung,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Dong-eui University

빠르게 진화하는 상용 웹 사이트들의 검색 및 인터페이스 기술과 달리 도서관의 OPAC 시스템은 그 변화를 빨리 수용하지 못해 그 결과로 OPAC 사용에 있어 이용자들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 이처럼 도서관 OPAC의 진보적인 개발이 시급한 실정에서 등장한 개념이 '차세대 OPAC'이다. 본 연구는 차세대 OPAC의 특성을 열거하여 핵심 항목으로 구성 된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고 향후 이를 이용하여 대학도서관에서의 차세대 OPAC 적용 현황을 평가·분석하는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최종적인 연구의 초기단계로 차세대 OPAC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체크리스트 예비 항목을 작성하는 것으로 제한한다.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오늘날의 검색 기술은 적합한 많은 양의 정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불필요한 정보들을 얼마나 잘 여과시켜서 제공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이에 각종 웹 포털사이트나 검색엔진, 그리고 온라인서점 등에서는 검색 시스템에 새로운 편의 기능 및 기술들을 개발·적용하고 있고 이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계속적으로 확대·발전시키고 있다. 반면 오늘날 검색 시스템의 근간인 도서관의 OPAC 시스템은 검색 기술 개발에 있어 주도적인 위치에 서지 못하고 오히려 뒤쳐지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게 한다. 결국 이용자들은 일반 상용 웹사이트들 보다 OPAC을 이용하는데 더 어려움을 겪고 만족도도 낮다는 연구 결과(Pace 2007)에 이어 Antelman 등(2006)은 심지어 OPAC은 폐쇄적이고

정적이며 복잡한 시스템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같이 OPAC 시스템의 시급한 변화와 더불어 '차세대 OPAC'의 개념이 등장했다.

차세대 OPAC은 기존 도서관 목록의 모델을 따르면서 Web 2.0과 Library 2.0은 물론 나아가 Library 3.0과 같은 신개념의 기술 특성까지 추가된 개념이다. 실제로 차세대 OPAC은 서지 목록이 아니라 인터페이스이자 도구이며 기술적 측면으로는 데이터베이스와 색인의 조합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차세대 OPAC의 기술 속성 및 기능들을 이론적 검토를 통해 파악하고 실제 도서관 OPAC의 차세대 서비스 정도를 평가 할 수 있는 '평가 항목 체크리스트'를 설계하고자 하였다.

1.2 선행연구 개관

차세대 OPAC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아주 최근에 와서야 수행되었다.

구중역 등(2007)은 차세대 OPAC의 개념과 발전과정, 이용자 이용행태, 도서관의 위기의식 등에 관한 이론적 검토와 실태조사 토대로 OPAC의 인터페이스와 기능을 개선하는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을 제시하였다.

심경(2008)은 “차세대 도서관 목록”, “차세대 도서관 목록의 사례”, “차세대 도서관 목록의 사례(2)”라는 3편의 논문에서 차세대 도서관 목록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차세대 도서관 목록 패키지 중 외국에서 널리 보급된 네덜란드의 AquaBrowser와 OCLC의 WorldCat Local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도서관시스템을 활용하면서 인터페이스를 개선점을 제시하고 있다.

윤정옥(2010)은 차세대 도서관 목록의 주요한 기능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OCLC의 WorldCat Local 기반으로 구축된 University of California 도서관의 ‘차세대 멜빌 파일로트’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Blacklight 기반으로 구축된 Stanford University 도서관의 ‘SerchWorks’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국외에서는 Mashall(2007)이 차세대 도서관 목록의 필요성, 개념 정의, 기능 등에 관한 광범위한 논의를 제공하고 있다.

Antelman(2008)등은 21C형 도서관 목록으로 차세대 목록을 소개하고,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도서관에 Endeca의 Information Access Platform을 도입한 사례를 보여주는 것으로 차세대 도서관 목록에 대한 전반적인 기능과 역할에 대해 설명하였다.

Marcin(2008) 등은 DiMenna-Nyselius 도서관에서 차세대 OPAC 서비스를 위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그들

이 적용한 시스템 평가 및 선택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는 14개의 차세대 OPAC 선택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Tam 외(2008)는 외국인 학생들이 선호하는 차세대 OPAC의 특성들을 확인하기 위해 총 16명의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은 검색 결과의 더 나은 네비게이션을 제공할 수 있는 추천 기능 등을 선호하였고 반면 RSS나 이용자 참여에 관련된 기능들은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Yang 등(2011)은 “Next generation or current generation?”이라는 연구에서 미국과 캐나다 소재 260개 대학 도서관을 대상으로 12개의 차세대 OPAC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차세대 도서관 목록의 적용 현황을 평가·분석하였다.

2. 차세대 OPAC의 개념

‘차세대 OPAC’은 도서관이 소장하는 콘텐츠 및 데이터베이스의 검색과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업 부문의 다양한 최신 웹 기술들을 기존 도서관 OPAC에 적용한 시스템이다. 이것은 공유·개방을 중시하는 Web 2.0/Library 2.0의 특성뿐만 아니라 시맨틱 기술과 온톨로지 적용을 핵심으로 개인 맞춤화, 모바일 연계 등을 중시하는 Library 3.0과 같은 기능들도 포함할 수 있다.

윤정옥(2010)은 차세대 OAPC에 대해 ‘전통적인 통합 도서관 시스템을 넘어서서 기능적인 면에서 보다 선진화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존 OPAC을 대체하거나 업그레이드 하려는 노력의 산물’이라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대안적 검색과 발견 인터페이스인지, 소셜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인지, 아니면 둘 다를 합친 것인지

지에 대해서는 도서관들마다 의견이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다.

심경(2009)은 차세대 OPAC은 이전부터 기존 도서관 목록이 가지고 있던 장점, 즉 소장 자료의 정교하고 정확한 발견 및 위치정보 제공이라는 기능에 일반 웹에서 제공되는 새로운 인터페이스 기능을 통합하여 변화하는 이용자 요구수준에 근접하려는 의도로 시작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미국 Vanderbilt University 도서관의 Marshall Breeding이 ‘차세대 목록이란 사실상 차세대 도서관 인터페이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합하다’는 주장을 인용하면서 차세대 목록이 서지목록 자체가 아니라 인터페이스이자 도구이며, 기술적 측면으로는 데이터베이스와 색인의 조합임을 지적하였다.

현재 미국과 유럽의 도서관에서 이용하고 있는 차세대 도서관 목록 인터페이스의 사례는 Breeding의 ‘Library Technology Guides’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Discovery Later Interfaces’로 AquaBrowser Library, BiblioCommons, Blacklight, Enct,e, Endeca, Enterprise, Primo, SOPAC, Scriblio, Summon, Vufind, Visualizer, WorldCat Local 등 모두 13개의 검색 인터페이스를 소개하고 있으며, 이들을 적용하고 있는 도서관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검색 인터페이스는 도서관이 어떤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을 사용하든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아직 차세대 OPAC에 대한 개념이 혼재되어 있고 그것이 지녀야 하는 일반화된 특성은 무엇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웹 기술과 검색 기능들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차세대 OPAC이 지녀야 할 기능과 특성도 계속 수정될

것이다. 하지만 현시점의 기술에서 차세대 OPAC의 특성이 무엇인지는 일반화할 수 있으며 그것을 사용하여 현재 사용 중인 OPAC의 수준이 어떠한지는 평가할 수 있다. 현 수준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지속적인 OPAC의 기능성을 개선하여 이용자 친화적인 세련된 인터페이스로의 발전을 고무시킬 수 있다.

3. 차세대 OPAC 체크리스트

본 논문의 목적은 앞에서 밝힌바와 같이 향후의 연구에서 사용할 차세대 OPAC 체크리스트를 설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차세대 OPAC의 특성 및 기능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고 각 연구들이 포함하고 있는 차세대 OPAC에 관한 항목들을 광범위하게 추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는 현재까지 연구자가 찾아낸 총 5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표 1>과 같이 분석·정리하였다.

분석 대상이 된 논문 중 구중억 외(2007)는 차세대 OPAC의 특성으로 총 18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Mashall(2007)은 차세대 목록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를 하면서 8개의 항목을 제시하였다. 또한 Marcin 외(2007)는 Encore interface를 평가하면서 10개의 특성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Tam 외(2009)은 외국인 학생들의 선호도 조사를 통해 차세대 OPAC가 지녀야 하는 특성으로 8개의 항목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의 Yang 외(2010)는 미국과 캐나다 소재 260개의 대학 도서관의 차세대 OPAC 적용 현황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12개 항목의 체크리스트 사용하였다.

5개의 논문 모두에서 차세대 OPAC의 기능으로 포함하고 있는 특성은 철자 오류 수정, 패킷 브라우징, 매쉬업이고 4개의 논

<표 1> 차세대 OPAC 체크리스트

항목	구중역 외	Marsall	Marcin 외	Tam 외	Yang	중복 (count)
철자 오류수정	○	○	○	○	○	5
패킷 브라우징	○	○	○	○	○	5
RSS	○	○		○	○	4
매쉬업	○	○	○	○	○	5
적합성순 정렬	○	○		○	○	4
추천기능		○	○	○	○	4
빠른검색	○	○			○	3
이용자참여	○	○		○	○	4
통합검색	○		○		○	3
SNS	○				○	2
인터페이스 구성	○				○	2
위젯	○		○			2
태그 클라우드			○	○		2
동적 실시간정보	○					1
SOPAC	○					1
검색어 자동완성	○					1
고급검색			○			1
기록 내보내기			○			1
서비스형 S/W	○					1
소셜 북마크	○					1
비주얼서치	○					1
오픈서치 플러그인	○					1
지속적 링크 정보					○	1
클러스터링	○					1

문에서 중복되는 특성으로는 RSS, 검색결과 의 적합성순 정렬, 추천기능, 이용자 참여 기능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연구들에서 3번 중복되는 특성은 빠른 검색, 통합검색이다. 2번 중복되는 특성은 SNS, 인터페이스 구성, 위젯, 태그 클라우드 기능이다.

분석을 통해 중복된 항목을 제외하고 차세대 OPAC의 특성으로는 총 24개 항목이 포함되었다. 이들 중 최소 2편 이상의 논문에 나타난 항목들만 최종적인 체크리스트에 포함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차세대 OPAC 체크리스트

평가 체크리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자 오류수정 • 패킷 브라우징 • RSS • 매쉬업(Mash up) • 적합성순 정렬 • 추천기능 • 빠른 검색 • 이용자 참여 • 통합검색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 결과페이지의 인터페이스 구성 • 위젯 • 태그 클라우드

4. 결론 및 제언

오늘날의 이용자들은 검색엔진, 웹 포털, 온라인 서점 등의 인터페이스에 매우 익숙하고 이와 유사한 기능 및 인터페이스로 도서관 OPAC 시스템을 사용하길 원한다. 또한 상업적인 검색 시스템들이 이용자들의 요구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새로운 검색 기술들과 기능들을 추가해 왔지만 도서관 OPAC 시스템은 그렇지 못했다. 이제 도서관 OPAC 시스템도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좀 더 친숙한 차세대 OPAC으로 진전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차세대 OPAC 관련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차세대 OPAC이 지녀야할 특성에 관한 체크리스트를 설계하였다. 현 시점에서 본 연구자가 찾은 총 5개의 체크리스트가 분석에 이용되었고 2개의 체크리스트에 중복적으로 사용된 13개의 항목들이 체크리스트에 포함하였다. 이것은 철자 오류수정, 패킷 브라우징, RSS, 매쉬업, 적합성순 정렬, 추천기능, 빠른 검색, 이용자 참여, 통합검색, SNS, 결과페이지의 인터페이스 구성, 위젯, 그리고 태그 클라우드 기능이다.

본 논문은 향후 연구의 예비 단계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체크리스트 설계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대학도서관에서의 차세대 OPAC의 적용을 고무시킬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본 연구는 향후 더 광범위한 선행연구 검토가 포함될 것이고 더욱 많은 특성들을 포함한 광범위한 예비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수행할 계획이다. 그렇게 완성된 체크리스트는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차세대 OPAC 적용 현황을 파악하는데 이용되어 질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구중억, 광승진. 2007. 차세대 OPAC의 인터페이스와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8(2): 61-88.
- 심 경. 2008. 차세대 도서관 목록. 『도서관문화』. 49(9): 22-28.
- 심 경. 2008. 차세대 도서관 목록의 사례 : AquaBrowser. 『도서관문화』. 49(10): 48-56.
- 심 경. 2008. 차세대 도서관 목록의 사례(2) : WorldCat Local. 『도서관문화』. 49(11): 54-61.
- 윤정옥. 2010. 차세대 도서관 목록 사례의 고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1): 1-24.
- Antelman, K., Lynema, E. and Pace, A.K. 2006. "Toward a twenty-first century library catalog." *Information Technology and Libraries*, 25(3): 128-139.
- Breeding, M. 2007. "Introduction." *Library Technology Reports*, 43(4): 5-14.
- Marcin S. and Morris P. 2008. "OPAC: The Next Generation Placing an Encore Front End onto a SirsiDynix ILS." *Computers in Libraries*, 28(5): 6-9.
- Pace, Andrew K. 2007. "Users and Uses of Bibliographic Data: The Promise and Paradox of Bibliographic Control." [cited 2010. 7. 1]. <<http://www.lib.ncsu.edu/endeca/presentations/20070308-fbc-pace.ppt>>
- Tam, W. and Cox A.M. 2009. "Student user preferences for features of next-generation OPACs." *Program:*

electronic library and information systems, 43(4): 349-374.

Yang, S. Q. and Wagner, K. 2010. "Evaluating and comparing discovery tools: how close are we towards the

next generation catalog?" *Library Hi Tech*, 28(4): 690-709

Yang, S.Q. and Wagner, K. 2011. "Next generation of current generation?" *Library Hi Tech*, 29(2): 266-300